

제28회 중소기업주간 선포식



제28회 중소기업주간 선포식
테이프 커팅식을 하는 중소기업
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
(오른쪽 세번째 우리협회 백중
윤 수석부회장, 다섯번째 중소
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 등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지난 5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층 로비에서 '제28회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협회를 대표하여 백중윤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는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셋째 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등 우리경제의 지속성장 한계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담았다.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시장의 공정성, 공정한 자원배분, 바른 시장경제 거버넌스 등 3개 분야에서 공정한 경제구조가 구축돼야만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계는 이를 위해 산업·업종별 기술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스마트공장 구축, 글로벌화·판로

제28회 중소기업주간 선포식
 테이프 커팅식 후 개최된
 기자간담회(오른쪽 세 번째
 우리협회 백중운 수석부회장,
 여섯 번째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혁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주간행사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행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15개 중소기업단체 공동 주최로 △201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제막식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 △중기금융지원제도 설명회 △전문무역상사 수출 상담 등 108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개최됐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

영란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법의 취지가 좋아도 시행에 부작용이 따른다”면서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처럼 특정 숫자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하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제23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개최



제23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시상식이 지난 5월 27일 서울 63빌딩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주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가 주관하는 '제23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이 지난 5월 27일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우태희 산업부 2차관, 박기동 한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과 가스산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대회를 통해 "우리 산업인 모두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역량 강화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서비스로 가스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가자”라고 강조하며 “2020년까지 목표로 한 글로벌 TOP 10대 기술확보와 100만 가구당 인명피해율 5.0명 이하 세계 최고 수준의 감축 목표를 2017년까지 조기에 달성 하겠다”고 밝혔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치사를 통해 “점차 대형화, 복잡화하는 가스사용 환경에 대응해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관리와 골든타임 대응력 강화 중심으로 전환키 위해서는 정부와 가스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가스산업 관계자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이어졌다. 가스안전관리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도시가스(주) 유승배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동덕산업가스(주) 이영도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우리협회 회원사로 협창건설(주) 김영태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주)화인이앤씨 이정수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주)경보엔지니어링 차동영 대표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

제23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회원사 수상자 명단

성명	소속 및 직위	훈격
김영태	협창건설(주) 대표	국무총리 표창
이정수	(주)화인이앤씨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차동영	(주)경보엔지니어링 대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표창

‘제23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영광의 가스설비건설인



수상 회원사와 함께[오른쪽부터 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이두형 위원장,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 협창건설(주) 김영태 대표, (주)경보엔지니어링 차동영 대표, 협회 기영환 가스자문위원]

국무총리 표창



협창건설(주)
김영태 대표

협창건설(주) 김영태 대표는 지난 25년간 사업을 영위하며 부실시공 예방과 무재해를 달성 등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에 헌신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서울·경기지역 도시가스 관로공사(150km)를 무사고 시공했으며, 시공실명제 확립으로 가스안전 관리를 선도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 가스안전 교육을 확대해 시공 기술력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응급복구팀을 상시 운영하여 도시가스 노후배관 가스 누출을 복구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독거노인세대 및 아파트 등의 가스사용시설 무료 점검을 비롯해 가스안전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가스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선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주)화인이엔씨
이정수 대표

(주)화인이엔씨 이정수 대표는 지난 35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며 가스시설시공업 분야 신기술·신공법 도입과 청정에너지 보급·확대에 공헌했다.

또한 철저한 책임시공과 협력관계 구축으로 가스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공정을 관리했으며 창립 이래 무사고를 달성하는 등 업계 모범이 되고 있다.

한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서울간사로 활동하며 업체간 정보교류 및 가스시공 신기술 홍보를 비롯해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을 적극 펼치는 등 가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표창



(주)경보엔지니어링
차동영 대표

(주)경보엔지니어링 차동영 대표는 지난 1986년 경보전자 산업을 설립하여 가스차단기 및 경보기를 보급했으며, 지난 1998년 (주)경보엔지니어링을 설립,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4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지역 가스시공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가스안전결의대회를 추진, 가스시공업 발전에 숭선수범 했으며, 지난 2011년 서민층가스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노후가스시설 개선에 크게 노력했다.

현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지역 가스시공협의회 간사로 활동하며 각종 봉사활동 및 시설 개선작업에 참여해 가스 안전을 선도하고 있다.